"'참회·진호국가·이원진리'로 진각종풍 세울 터"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 봉행



5월 26일 서울 회당기념관에서 봉행된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에는 5000여 대중이 참석해 축하했다.

"참회와 수행, 회향으로 종단의 발전과 민족의 상생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이 5월 26일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고 내 회당기념관에서 도흔 종인을 비롯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개식사, 삼귀명례, 화공양, 강도발원문, 개회예참,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혜정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전국의 신교도와 함께 종조께서 교화하시던 17년 종사정신으로 돌아가 종풍을 쇄신하는 일에 진력하고자 한다"면서 "초기 교화정신인 '참회'와 그 실천 이상향인 '진호국가(鎭護國家)불사', 실천이념인 물심양면의 '이원(二元)진리' 세 정신을 화합이라는 큰 틀에 담고, 하나된 수행으로 승속동행의 진각종풍의 향기를 피워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혜정 통리원장은 또 "종단의 창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고 포교와 교육, 복지의 종단3대 종책의 기조를 살려 종행정의 내실화와 교화활동의 심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각문화전승원은 종조정신과 밀교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과 함께 참회와 수행, 회향하는 종단의 위상을 세워 분별없는 화합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지관 스님은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진각종의 발전에 큰 힘이 된 정신은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인 참회와 심인 그리고 삼밀수행(三密修行)이라 생각되어진다"며 "혜정 통리원장님이 뜻하시는 바, 이웃과 함께하는 참회와 수행 그리고 회향의 정신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 마다 주인공이 되면 어디서나 진리가 실현된다)'이라는 수행자의 힘과 함께 이 세상의 삶과 문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조창희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혜정 정사님의 제28대 통리원장 취임을 계기로 진각종단이 회당 대종사님의 종지를 받들면서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법계에 두루 펴주시어 한국 불교계 발전에 빛을 더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회장 심상진 선사는 봉행위원장 겸 총무부장 수성 정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로 선출된 통리원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연맹과의 튼튼한 유대속에 6.15 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한 훌륭한 불사들을 이루어 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 와나메티 세계불교우의회 세계본부회장 겸 태국적십자사 총재와 이케구찌 게이캉 고야산 진언종 종기고문, 판두 반다라네케 스리랑카공화국 종교성 장관도 축사를 통해 진각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스리랑카공화국 정부는 혜정 정사에게 그동안 종단과 스리랑카 우호 교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태국왕실에서는 불상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5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원불교 국제부장 김상호 교무, 시얌종 종회의원 시라왕사 스님, 푸레바트 라마 몽골불교미술대학장, 프라 탐바라자라야 태국불교승단 원로회의 부종정, 위덕대학교 배도순 총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찰외호 전진대회 '불사'

옥천사암련 등 준비



금강물환경연구소 건립으로 사찰수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옥천 대성사.

옥천 대성사 대웅전 뒤편 30m에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 연구동이 2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어 사찰 수행환경 훼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규탄 전진대회 등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대성사(주지 혜철)가 속한 옥천불교사암연합회와 충북불교총연합회, 태고종 충북지부는 5월 22일 긴급 모임을 열고 "옥천군의 건물허가과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환경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며 "불교계 요구가 무시된 채 15%가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수행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규탄 전진대회 등을 열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영학 옥천불교 연합신도회장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하다면 대웅전 정면에서 참배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국회의원은 "옥천 대성사는 전통사찰로 선남선녀 인연 맺기, 한-베트남 문화교류,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 국군장병 위문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옥천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불교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지역불교계는 결의문을 통해 "금강물환경연구소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산림훼손을 원상 복구하고, 옥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물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용희 국회의원, 한용택 옥천군수, 김창수 옥천경찰서장, 고윤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시하 청주불교방송 총괄국장, 황용관 PD, 태고종 충북교구 남부 분원장 자해 스님 및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 전수하 옥천불교 청년회장, 김봉환 불영티비 사장, 주경종 대성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갈 길 몰라 헤매는 중생 인도해주소서"

천태종, 구인사서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대재 봉행


5월 21일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35주년 열반재가 2만 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제35 주기 열반대재가 5월 21일 오전 11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한 2만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을 떠나보내고 35년의 유수와 같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미혹한 저희 종도들은 대조사께서 누리셨던 참다운 사홍서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 잿빛 옷에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수많은 법손들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나 공부가 미흡한 만큼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매한 중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해 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사회부장 세영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경제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남북 긴장관계 등으로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가치관마저 혼란스러워 큰 스승의 자취가 더욱 그립다"며 "대조사께서 구인사에 수백만 그루의 묘목을 심어 미래를 준비했듯 천태종도 이를 본받아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찬희 종무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는 불법을 통해 나라와 중생을 구했다"면서 "반야지혜와 무애해탈 등 불퇴전의 구도정신으로 천태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열반대재를 봉행한 사부대중은 오후 2시 상월원각 대조사를 모신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선거법 개정 등 결의서 채택

태고종, '종단문제 해결방안' 워크숍 열어

태고종은 5월 21~22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국장스님 및 전법사를 대상으로 '종단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찾기'를 공통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종단의 위상이 크게 추락해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교화일선에서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는 국장스님들을 보니 새 희망을 느낀다"며 "종도들의 올바른 인식과 동참만이 종단을 살리고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 기탄없는 의견개진으로 종단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국 27개 교구 가운데 19개 교구종무원에서 46명의 국장스님 및 전법사들이 동참했으며, △총무행정과 교구행정의 발전방향 찾기 △종도의 자질향상과 교육문제에 대한 방안 찾기 △종단재산의 보호방안 및 재정확립 방안 찾기 3개 분과로 나눠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 동참한 국장 스님들은 전체토론을 통해 종단이 안정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다수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삼보정재의 망실을 파악해 환수하고 부채는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라며 △원칙에 입각한 열린 종무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3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한편 태고종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종도들의 뜻과 의견을 수렴, 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해외 명문대학원 줄줄이 '합격'

금강대 성 총장 "교육패러다임 바꾸는 산증인" 격찬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성낙승) 졸업생들이 해외 명문대학원에 잇따라 합격해 화제다.

최근 강가희(통상통역영어전공, 2009년 졸업) 씨가 미국 명문대학인 보스턴대 대학원에, 김하늬(통상통역중어전공, 2008년 졸업)씨가 미국 미시간대, 인디아나대, 아이오아대, UCLA 등 4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홍길동(통상통역중어전공, 4학년)씨가 타이완을 대표하는 국립 타이완대학 대학원에, 곽은희(통상통역중어전공, 2009년 졸업)씨가 중국 푸단(復旦)대학 대학원에 합격했다.

올해 초에는 정상교(불교학과, 2008년 졸업)씨가 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 원영아(통상통역일어전공, 2008년 졸업)씨가 와세다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이로써 올해 3회 졸업생을 배출한 금강대는 미국 대학원에 4명, 일본 대학원에 5명, 중국 대학원에 5명, 타이완 대학원에 1명 등 총 15명의 졸업생을 해외 명문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금강대는 이들 중 선발을 통해 영어 · 유럽어권은 년간 2만8000달러, 일본어권은 2만1000달러, 중국어권은 1만4000달러를 2년간 지원한다.

성낙승 총장은 "이 졸업생들은 앞으로 금강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2등급 이내의 우수 신입생 선발 △전교생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제공 등을 하며 '작지만 강한 대학' 소수정예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